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22년 8월 조사 -

감염자수 증가하는 한편, 계절 수요는 플러스 요인

~ 향후는 DX 등 디지털 수요 및 보복 소비 확대가 상승 요인으로 ~

(조사대상 2만 6,277사, 유효회답 1만 1,935사, 회답율 45.4%,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2년 8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41.4로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순조로운 계절 수요 및 디지털 관련 수요 확대 등 소폭이지만 2개월 만에 상향으로 전환되었다. 향후의 경기는 통상 상태로 돌아가려는 가운데 하방압력을 내재하고 있으나 대체로 보합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서비스』 『부동산』 등 5개 업계가 개선, 『운수·창고』 『도매』 등 5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디지털화·DX로의 움직임이 가속하는 가운데 「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관련이 견조로 추이하였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규 감염자수는 계속 증가하여 많은 업종에서 내림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10개 지역 중 4개 지역이 개선, 6개 지역이 악화하였다. 도도부현(都道府県) 별로는 24개 도현(道県)이 개선, 22개 도부현(道府県)이 악화, 1개 현(県)이 보합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관광으로의 영향은 지역간에 차이가 보이는 한편 공급 제약의 악재도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이 3개월 만에 모두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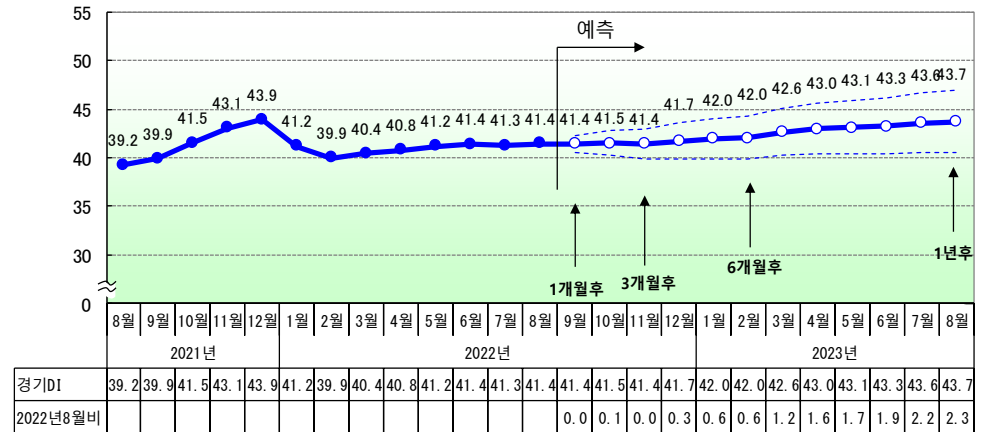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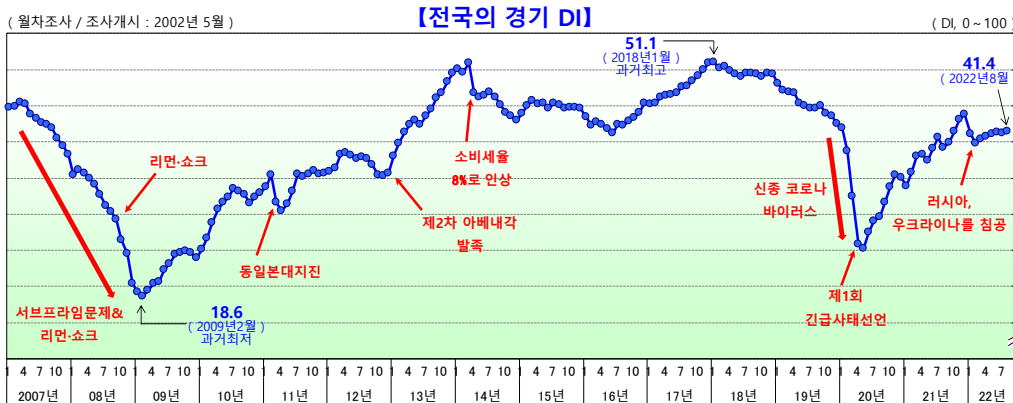
< 2022년 8월의 동향 : 소폭 개선 >

2022년 8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41.4로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8월의 국내경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규 감염자수 증가가 계속된 한편 3년 만에 행동 제한 없이 여름 시즌 영향을 받는 형태의 추이로 나타났다. 냉방기기 등 계절 상품 판매가 순조로웠던 한편 오봉(お盆)연휴·여름 휴가로 인한 관광 수요도 상향하였다. 또한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보서비스업과 더불어 IT인재의 파견 수요 등도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한편 연료 가격 급등 및 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 계속되는 가운데 감염자수 증가에 따른 출근 제한 등은 악재로 작용하였다. 또한 식품을 포함한 생활필수품의 잇따른 가격상승은 개인소비를 계속해서 하락시켰다. 국내경기는 순조로운 계절 수요 및 디지털 관련 수요 확대 등 소폭이지만 2개월 만에 상향으로 전환되었다.

< 향후의 전망 : 대체로 보합 경향으로 추이 >

향후 1년간 정도의 국내경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의 행방 외에 원유·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 및 엔저(円低) 진행, 생활필수품의 가격인상, 계속된 공급 제약, 신종 코로나 감염 동향, 인력부족, 미국·유럽·중국 경제의 하락 등 경제의 하방압력이 여러가지로 표면화되면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DX 등 디지털 수요 확대 외에 각종 경제대책 집행 및 행동 제한 없는 행락 시즌,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보복 소비 등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가 일상으로 향해가는 힘은 경기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향후의 경기는 통상 상태로 돌아가려는 가운데 하방압력을 내재하고 있으나 대체로 보합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